

認知樣式과 適應機制的 關係

一場依存性—場獨立性을 中心으로—

李 奉 鍵

(서울大 心理學科 박사과정)

要 約

個人은 각기 獨特한 知覺·記憶 및 思考方式을 갖고 있다. 이런 方式을 Klein이 認知樣式이라고 命名한 이래, 認知樣式이 個人의 行動을 一貫性있게 해주며 非認知的 行動에도 影響을 미치고 適應行動의 樣式을 결정하는 주요한 要因으로 생각되어 왔다.

認知樣式에 대한 중래 연구중 Witkin의 場依存性—獨立性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本論에서는 認知樣式的 基本적 假定을 충족시키는 場依存性—獨立性的 개념 및 側定方法을 考察하고, 場依存性—獨立性和 適應類型 및 精神病理와의 關係에 대한 研究結果를 考察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場依存性—獨立性이라는 認知樣式이 精神病理를 이해하는 데 有價的인 道具가 될지도 모른다는 점이 시사되었다.

I. 序 言

개인에게 固有적이며 일관성있는(consistent) 行動樣式(styles of behaving)이 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심리학자들에게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개인은 저마다의 특유한 方法으로 知覺하고, 記憶하고, 思考한다. 知覺과 認知의 연구에서 거의 예외없이 나타나는 개인차의 일부도 결국 이러한 양식에 기인하는 것 같다. 다양한 認知的 態度들이 개인의 行動에 一貫性(consistency)을 부여하는 한 요인이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인지적 태도들이 구조화된 것을 認知樣式(cognitive style)이라고 부른다”(Klein, 1970, p. 201).

- 1) 개인특유의 지각, 기억, 사고하는 양식을 Klein(1970)은 인지적 태도(cognitive attitudes)라 명명함.

이와같이 개인들이 지각 및 知的 活動에서 보여주는 특징적이고 일관성있는 양식이 바로 인지양식이다(Witkin, 1971). 다시 말해서 인지양식이란 다양한 심리학적 영역에 걸쳐있는 보다 폭넓은 차원의 개인적 기능을 인지적 측면에서 나타낸 개념이라 하겠다.

환경자극에 반응하는 기본적인 유력한 수단으로서의 인지양식에 대한 집중적인 실험연구는 지각에서의 動機(motivation) 문제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난 1950년대초에 와서야 비로소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Tyler, 1965). Klein (1951)은 개인의 특징적인 지각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적인 인지양식에 관련된 변인들을 개념화하였는데 Klein의 연구로부터 유래된, 지각과 인지양식에 관한 연구의 흐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세 주류란 먼저 場依存性—獨立性(field dependence-independence)에 대한 Witkin 등(1954, 1962)의 연구, 認知統制原理(cognitive control principles)에 대한 Gardner 등(1959, 1960)의 연구, 그리고 범주화(categorization)와 개념화(conceptualization)의 양식에 대한 Kagan과 그의 동료들(1963)의 연구이다.

이들 인지양식에서의 個人差의 本質과 程度를 탐색하기 위하여 과거 10여년간 수많은 연구가 행해졌다. 이런 연구들의 주요 假定은 인지양식이란 특정한 유형의 상황에 적응할 때 개인이 즐겨 취하는 양식으로서 기억, 사고등과 같은 행동의 여러 측면을 결정하는 중요한 決定因子라는 점이다. 나아가서 이런 연구들은 인지과정에서 選好되는 양식이 정서, 충동과 방어기제와 같은 개인기능의 非認知的인 측면과도 관계있으며 아울러 초기 사회화과정에서의 對人關係史와도 관계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와같이 지각양식을 二分法으로 記述하는

것은 이것들이 성격, 지각, 인지등의 연구에 일반적으로 적용이 안된다는 단순한 이유로 해서 점차적으로 안 쓰이게 되었다. “그러나 Witkin과 그의 동료들(1954, 1962)에 의해 행해진 광범위한 연구계획의 경우는 예외이다. 이들은 장 의존—독립성이라는 현재 가장 널리 알려진 인지양식을 밝혀냈다.”(Kimble & Garnezy, 1968, p. 496).

Witkin의 장 의존—독립성의 개념은 일관성있고 광범위한 행동영역과 관련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위 개념은 여러 행동영역에 대해 예측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Witkin, Goodenough, & Oltman, 1979). 따라서 本論考에서는 장 의존—독립성의 개념과 측정방법을 고찰한 후 인지양식과 適應 및 病理(pathology)와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장 의존—독립성과 그 측정

Witkin과 그의 동료들(1954)은 개인이 空間垂直上에 자신을 定立(orientation)시키는데 시작적인 혹은 운동감각적인 단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10여년간 연구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개인차가 관찰되었다. 수직정렬에 대한 参照標準를 視覺場(visual field)에 주로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중력에 대한 자신의 신체감각에 주로 의존하는 사람들도 있다. 연구자들은 시각장에 의존하는 경우를 장 의존적이라 칭하였고 한편 신체단서를 사용하여 분석적으로 장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장 독립적이라고 칭하였다. 이 두 용어는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동성과 능동성을 각각 대표한다고 볼 수도 있다.

장 의존적 지각양식이 우세한 사람의 지각은 주위환경의 전반적인 구조에 강하게 영향받으며 환경 즉 場의 부분들은 서로 ‘혼합’된 것으로 지각한다. 한편 장 독립적 지각양식이 우세한 사람은 장(場)의 부분들이 조직화된 배경으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지각한다. Witkin등은 이와같은 지각적 경향이 인지영역과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러한 양식적인 경향(stylistic tendency)을 ‘인지양식’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면 먼저 장 의존—독립성의 측정과정을 살펴보자. Witkin그룹이나 다른 연구자들이 장 의존—독립성을 측정하는데 주로 사용한 도구는 RFT(Rod & Frame Test)와 EFT(Embedded Figure Test)이다. Witkin등(1954)은 1950년대초에 RFT방법을 도입하여 복잡한 조건하에서의 수직성 지각의 정확성이 장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지각하는 일반적 능력의 지표임을 보여주었다. RFT에서 피험자들은 좌우로 회전할 수 있

는 정방향의 發光장틀(frame)과 또한 창틀 속에서 창틀과는 별도로 좌우조각이 가능한 발광막대를 다주한 채 캄캄한 방에 앉는다. 이때 창틀은 피험자에게 시각적 단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피험자의 과제는 창틀과 막대가 실험자에 의해 임의로 조작된 후에, 막대가 자기가 볼 때 똑바로(수직으로) 서있다고 지각될 때까지 실험자에게 막대를 움직이도록 지시하는 것이다. 진짜 수직과 피험자에 의해 지각된 수직간의 차이가 피험자의 점수이다. 이때 실험자는 창틀과 막대를 조작하는 대신 피험자가 앉아있는 의자를 조작할 수도 있다. 피험자의 의자를 조작하는 상황을 전자의 막대 창틀상황(rcd-frame situation)에 대하여 신체적응상황(bcdy-adjustment situation)이라 한다.

위의 검사상황에서 피험자들은 양극단에 이르는 현저한 개인차를 보여주었다. 한쪽 극단의 피험자들은 기울어진 창틀에 자신을 평행하게 일치시켰으며 검사 진행중에 시종일관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였다. 한편 다른 쪽 극단의 피험자들은 창틀이 기울어진 정도와는 무관하게 아주 정확하게 자신을 곧바로 세울 수 있었다. 이때 외적단서와 일치시켜 지각하는 전자집단을 장 의존적이라고 하고 반면 외적단서와는 관계없이 중력감각에 의존하여 정확하게 반응하는 후자집단을 장 독립적이라고 한다. 이와같은 단서를 사용하는 방식의 개인차는 여러 상황에서 일관적임이 밝혀졌다(Witkin 등 1954; 1972).

Witkin등은 지각상황에서 측정된 수치를 面接, Rorschach Test, TAT, DAP 등의 다양한 임상기법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측정된 성격평가지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예상했던대로 장의존적 지각수행은 수동적인 태도, 의존성, 자기감정의 불신, 그리고 투사된 신체적 체험등과 밀접하게 관계있었다. 3년 간격으로 실시한 RFT의 검사—재검사 신뢰계수는 .84였으며 RFT점수는 약물이나 스트레스 또는 특수훈련에 의해서 손쉽게 변화하지 않았다(Witkin et al, 1962). 이러한 결과는 RFT에 의해 측정되는 공간 定立(spatial orientation)의 개인차(variations)가 지각 또는 인지양식의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FT역시 복합구조의 장으로부터 측정된 구조(형태)를 분리시키는 것을 과제로 삼는다. 하지만 여기서는 수직선이나 신체위치의 정렬을 문제로 삼지 않는다. EFT에서 지각장은 현실적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즉 도형으로 제시된다. 원래의 표준 EFT는 24개의 복합도형과 이들과 짝을 이루는 8개의 단순도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형들은 Gottschaldt(1926)가 맥락(극場) 요인과 과거체험이 지각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역

할에 대해 연구할 때 사용하던 도형들로부터 선택한 것들이다. 복합도형들은 단순도형을 가려내는데 있어서의 난이도와 다양성에 따라 선택되었다. 피험자의 과제는 복합도형 속에 숨겨진 단순도형을 찾아내는 것으로 피험자의 점수는 단순도형을 찾아내는 데 소요되는 평균시간으로 측정된다. 이 점수는 피험자의 지각이 문항(단순도형)이 존재하는 맥락(복합도형)내에서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측정치를 제공해준다. 원점수는 표준점수로 환산되며 양의 표준점수는 비교적 장의존적인 지각수행을 그리고 음의 표준점수는 비교적 장독립적인 지각수행을 나타낸다.

3년간격으로 실시한 EFT와 검사-재검사 신뢰계수는 남녀 모두 .89였다. (Bauman, 1951) 그리고 반분신뢰도는 .90(Linton, 1952), .92(Longennecker, 1956), .95(Gardner, Jackson, & Messick, 1960), .88(Loeff, 1961)등으로 보고되고 있다. EFT에서의 수행은 숨겨진 맥락을 통찰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다른 여러 지각 검사에서의 수행과 관계있었다. 또한, 같은 능력이 관련된 다양한 지적 과제에서의 수행과도 관계있었다. (Fenchel, 1958, Gardner, Jackson, & Messick, 1960).

Jackson(1965)은 24쌍의 단순, 복합도형으로 된 EFT를 A형과 B형으로 나누었다. 각 형은 12쌍의 도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간제한은 3분이다. 이 분할로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영향을 주지 않고서 검사시행시간을 단축하게 되었다.

다수의 피험자를 장 의존-독립차원으로 나누는 경우 이들 각자에게 EFT를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이 못된다. 집단용 EFT(GEFT)는 원래의 개인용 EFT를 이러한 목적에 맞게 고친 것이다. GEFT는 8개의 단순도형과 18개의 복합도형으로 구성되어있는데 복합도형중 17개는 EFT에서 온 것이다. GEFT를 실시하는 경우 다수의 집단에 대한 EFT점수를 단 20분의 검사로 얻을 수 있다. GEFT는 피험자 모두가 대부분의 문항을 시도할 수 있도록 검사절차를 마련하였으므로 검사점수는 정상분포에 가까운 분포를 보여준다. “여러가지 증거를 종합해 보건데 GEFT는 개인검사가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EFT대신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Witkin et al, 1971, p. 29).

Holtzman(1955)은 Witkin등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내적 합치도를 포함하는 성격측정의 신뢰도 문제와 그리고 지각점수와 성격측정치간의 상관관계를 일반화시키는데 있어서의 교차타당도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Young(1959)은 Holtzman의 비판에 입각하여 Witkin의 가설을 보다 엄격히 검증하였다. 그는 지각을 측정하는 도구로써 RFT, Jackson의 간편

EFT, 그리고 Barrat와 Fruchter의 CWT(Chair-Window test, 1955)를 사용하였고 성격점사로써 DAP, Holtzman Inkblot test, Worchel의 SAI(Self Activity Inventory, 1956)를 사용하였다. Holtzman Inkblot의 채점은 Hertzman(1954)이 개발한 WPC(coping score)와 MHFA(introspective score)에 의거하였다. 연구결과는 Witkin의 결과처럼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장의존가설을 상당히 지지하였다. 특히 이 연구가 비록 같은 변인을 측정하였으나 다른 측정도구(이를테면 CWT나 Holtzman Inkblot test)를 사용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이 연구에서 특기할 만한 두가지 새로운 발견으로 첫째, SAI를 제외한 세 측정치(DAP, WPC, MHFA) 모두가 장의존점수와 의미있는 관계를 보여주었다는 점과 둘째로 CWT가 장의존성의 근거로 간주되고 있는 다른 측정치들과 현저한 관계를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CWT는 앞으로 이 연구영역에 있어서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Witkin등이 이 단계까지 다루어온 개인차의 차원은 지각장이 현실적으로 제시되었던 상징적으로 제시되었던 극단에 있어서 대조적인 두개의 장점근방식을 나타낸다. 그래서 Witkin과 그의 동료들은 장 의존-독립성이 “전체-모호”(global-diffuse)對 “분석-명료”(analytical articulated)한 인지기능의 차원으로 각각 지칭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은 장 의존-독립성이 사실상 개인의 ‘心理的 分化, (psychological differentiation)의 수준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Witkin et al, 1962, 1971).

이와 같은 分化의 개념은 Witkin의 추후연구(Witkin, 1979)에서 지지되고 있다. Forgus (1979, p. 248)은 ‘分化’라는 인지양식과 관련된 心理力動(psychodynamics)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있다.

인지양식	종류	추구 자극		회피 자극	포화상태에 있는 요소
		환경적	제약으로부터 해방	제약	제약
심리적화	장독립성	환경적	제약으로부터 해방	제약	제약
	장의존성	자기결정 (self-determination)으로 부터 해방	내부 단서	자유	자유

장 의존-독립성이란 개념은 아주 특수한 지각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폭넓은 인지양식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제한된 감이 없지 않다. 사실 이 인지영역에서 근본적으로 문제시되는 것은 보다 복합적인 구조 맥락 가운데서 단순한 구조 혹은 형태를 독립적이고 분석적으로 가려내는 개인의 능력이다. 하지만 인지양식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는 Witkin의 가설을 뒷받침 해주었고 인지과정의 장 의존-독립차원은 안정되고 전반적인 인간기능의 일면으로 등장하게 되었다(Witkin,

Dyk, Faterscn, Good enough & Karp, 1962; Witkin, Good enough & Karp, 1967; Dreyer, NebelKopt, 1969). 또한 EFT를 사용한 일련의 연구들도 장 의존-독립차원이 다른 심리적 영역의 분화된 기능들과 의미 있는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테면 의존성(Renner, 1970) 분리정체감(Sense of Separate identity) (Crandall & Sinkledam, 1964; Kipperman, 1964; Zuckerman, 1968), 방어의 본질(Bogo et al, 1970; Schimek, 1968), 그리고 병리형태(Gibeau, 1965; Witkin et al, 1954; Zukmann, 1957; Karp, Kissin, & Hustmyer, 1970)등과의 관계이다.

Kimble와 Garmegy(1968)는 장 의존적인 사람과 장 독립적인 사람의 성격 특징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다.

<장 의존적 유형>

1. 분석적 기술이나 독창성이 없다.
2. 사회관계에서 의존적이다.
3. 자각이 결여되어 있다.
4. 동조적이다.
5. 자존심이 낮다.
6. 타인의 욕구나 동기에 대해 감수성이 낮다.
7. 수동적이다.
8. 충동을 억압하는 경향이 있다.
9. 현실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10. 어머니가 강압적이었다.
11. 어머니가 자신감이 없고 과잉보호적이었다.

<장 독립적 유형>

1. 종합, 분석적인 지적 능력이 높다.
2. 사회관계에서 독립적이다.
3. 자신감이 있고 자각할 줄 안다.
4. 자율적이다.
5. 자존심이 강하다.
6. 타인의 욕구나 동기에 민감하다.
7.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8. 충동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9. 과잉통제나 지성화의 방어기제를 사용한다.
10. 어머니가 독립심을 길러주었다.
11. 어머니가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성격측정은 앞서 열거한 일련의 연구와 관련하여 장 의존-독립차원이 적응과 병리에 접근하는 유력한 방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III. 적응과 병리

Witkin의 分化假說(differentiation hypothesis)은 지

각적 문화가 잘된 사람일수록 환경을 보다 분석적이고 명료하게 체험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이론체계에서 분화된 심리적 기능의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廣域性(communality)을 개념화하기 위한 구조로 받아들여진다.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환자들은 지각수행에 있어서 양 극단에 이르는 장 접근양식을 모두 보여주었다(Witkin et al, 1954). 이러한 결과는 적응의 적절성이나 병리의 존재여부가 장 접근양식이나 분화의 수준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비교적 분석적인 장 접근을 하는 사람과 비교적 전체적인 장 접근을 하는 사람들 간에는 적응의 형태와 병리의 유형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양식이 정신기능의 전 영역에 걸쳐있는 침투력있는 차원이라는 점과 특정한 환경에 대해 適應的 價値를 갖고 있는 양 극단적(bipolar)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Goodenough, 1978 p. 166).

Good enough에 의하면 장 독립적 인지양식은 방랑적 유목민족 생활방식에 더 적응을 잘 하고, 장 의존적인 인지양식은 정착적 농경생활에 더 적응을 잘 할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분화가설을 중심으로 인지양식과 적응 및 病理와의 관계를 아동과 성인의 순서로 살펴본다.

Iscoe와 Carden(1961)은 16명의 소년과 15명의 소녀로 구성된 6학년 학급 전원에게 CMAS(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와 EFT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동성의 급우들에 대한 인기도를 측정하였다. 결과는 Witkin과 그의 동료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인기있는 소년들은 능동적인 장 독립적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소녀의 경우는 반대로 장 의존적일수록 더 인기가 있었다. 불안과 욕구수준을 나타내는 CMAS 점수는 소년의 경우 인기와 무관하였으나 소녀의 경우는 의미있는 음의 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CMAS와 장 의존도의 관계는 소년의 경우 무의미한 약간의 상관이 있었으나 소녀의 경우는 의미있는 음의 상관이 있었다. 이것은 장 독립적인 소년들이 급우들에게 폭넓게 받아들여지는 반면 장 독립적인 소녀들은 장 의존적인 소녀에 비해 불안하고 급우들에게 인기가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가 강력하고 보상하는 행동패턴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사실 소년들은 사회로부터 다소 공격적이고 직선적이며 분석적이 될 것을 요구받는다. 반면 소녀들은 순종적이고 동조적이며 '여자답게' 행동하도록 가르침받는다. 행동유형이 지각양식과 관계있다는 사실은 지각과 성격 간에 내재하는 통합적인 관계를 다시금 환기시켜주고

있다.

야노증 소년들에 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야노증 소년들은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며 충동의 통제가 빈약하고, 그들의 모친 역시 비슷한 성격특징을 보여준다(Gersl, 1939; Fenichel, 1945; Sperling, 1965). Scullen과 Herron (1969)은 소아과와 정신과에서 추출한 60명의 야노증, 비야노증 소년들을 대상으로 WISC와 아동용 EFT(CEFT)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에게는 EFT를 실시하였다. 예상대로 야노집단은 비야노 집단에 비해 CEFT에서 장 의존적인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WISC에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분석적, 장 독립적 기능을 반영하는 세 하위 척도(토막짜기, 모양마추기, 빠진곳찾기)에서 장 독립적 아동이 점수가 높다는 Witkin의 발견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Scullen과 Herron은 상반되는 이 결과에 대해 피험자 집단이 모두 하류계층의 소년들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지능검사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인의 영향은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Anastasi, 1958; Karp & Silberman, 1966). 따라서 하류계층 소년들의 장 의존-독립차원에 대한 지적 요인의 역할은 좀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정신과 집단과 소아과 집단의 집단간의 차이는 없었다. 이 결과는 장 접근양식이 적응의 적합성이나 병리 존재와는 무관하며 어떤 특정한 증상과 관계 있다는 Witkin의 가설 및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기대와는 달리 야노증 소년의 모친들은 자식과 같은 지각양식을 갖고있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 가능한 설명은 모친이 아동과 교류하는 유일한 인물은 아니라는 점이다. 야노증 아동은 도친이 아닌, 장 의존적 경향이 있는 다른 중요한 인물과 동일시해왔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비교적 장 의존적인 모친이 비교적 독립적인 자식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 독립적인 어머니는 초연하고 냉담한 태도를 보이므로써 야노증 아동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 아동은 아동의 지각양식에 대한 모친의 영향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으로의 보다 통제된 연구를 필요로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성인 병리집단의 장 접근 차원은 흔히 사용되는 진단법주와는 무관한 것 같다. 의료진에 의해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된 환자들은 지각수행에 있어서 양 극단에 걸친 분포를 보여주었다(Witkin et al., 1954). 또한 Bennet와 Bailey, Husmeyer, Kristicicson (1961)의 연구는 정신분열증 환자와 정상인 사이에 RFT점수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Gruen(1951)의 연구에서도 30명의 남자 환자 중 22명이 동성연애자였는데, 이러한 집단내의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전범위에 걸친 지각점수의 분포를 보여주었다. Franks(1956) 역시 MPI(Maudsley Personality Inventory)에 의한 신경증의 측정치와 RFT간에 무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고한 바 있다.

인지양식과 진단법주가 무관하게 나타나는 것은 진단법주가 증상단이 아니라 정신역동과 병리학에도 근거를 두고있다는 점과 또한, 진단법주가 중증 질병의 본질과는 무관할 수도 있다는 점으로 설명된다. (Krusse, 1957). 이를테면 일반집단이 신경증이전 정신분열증이면, 우울증은 이 양자에 모두 주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와같이 특정한 장 접근양식이 전통적인 진단법주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공통적으로 어떤 특정한 증상을 갖고있는 사람들은 지각수행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장 접근양식에 따르는 정신과 환자들의 증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장 의존 집단은 종종 심한 정체감의 문제를 안고있고 통제체제의 빈약한 발달로 기능상의 혼란이 있으며 강한 부적감(feelings of inadequacy), 수동성 및 무기력감 등의 증상을 보여준다. 한편 분석적인 장 접근을 하는 환자들은 대개 과대망상이나 자기도취, 자기과장, 과대이상(理想) 및 고립화의 경향이 있고 동격이 의향적이며 어설픈대로 정체감을 수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보여준다.

Gordon(1953)은 케양환자집단과 신경증집단 그리고 정상통제집단에게 RFT를 실시하고 의존척도상의 자기평가와 윗과의들의 평정을 비교하였다(정상통제집단의 경우는 윗과의의 평정이 없었다). 이 세 집단은 의존척도상의 자기평정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RFT에서 케양환자집단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현저하게 장 의존적이었다. 신경증집단과 통제집단의 경우, RFT와 자기평가 그리고 의사들의 평정은 서로 의미있는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케양집단의 경우, RFT와 의사들의 평정은 의미있는 관계가 있었으나 RFT와 자기평정은 일치하지 않았다. 케양환자들은 그들의 RFT점수나 의사들의 평정에 비해 자신을 보다 독립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케양환자들에게 있어서 RFT와 자기평정간의 차이는 특히 흥미있다. 케양환자들에 대한 보편적인 임상전해에 의하면 그들은 자신의 분투를 통하여 뿌리깊은 수동성과 끈질긴 의존욕구를 보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Alexander, 1950). 다시말해서 그들은 자신의 과잉분투를 통해서 자신이 실제의 자신보다 능동적이며 외부의 도움 없이도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과 타인에게 보여주고자 한다. 개인의 지각적 수

행이 개인 자신의 주장과는 달리 외적 지원에 대한 소망과 저변의 수동성을 반영한다는 것은 있음직한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지각과정에 있어서 장 의존적인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교적 독립적이라고 평가하려고 하는 Gordon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Taylor(1956)는 망상증이 있는 정신병환자와 환각증이 있는 정신병환자 사이에 지각수행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는 망상상태란 분리정체감과 자아통합을 견지하려는 환자의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며 반면 환각적 상태는 자아경계(ego-boundaries)가 와해된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환각과 비교해 볼 때, 망상은 보다 논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으며 자아와 비자아 간의 경계가 와해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환각의 경우는 내적 상태가 종종 외적 현실과 구분할 수 없게 되고 자아통합과 개체감(sense of individuality)은 유아기의 수준으로 떨어진다. Taylor는 이러한 전제로부터 환각증세가 있는 환자는 망상을 보이는 환자보다 장 의존적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또한 그는 환각이나 망상을 보이지 않는 정신병집단은 환각집단보다는 장 의존성이 덜하겠지만 망상집단과는 차이가 없으리라고 가정하였다. 가정대로 망상집단은 환각집단에 비해 EFT점수에서 의미있게 장 독립적이었다. 그리고 환각과 망상이 없는 집단 역시 환각집단보다는 장 독립적이었으며 망상집단과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신경증환자에 대한 연구에서 Zukmann(1957)은 히스테리로 진단된 환자들이 강박신경증 환자보다 의미있게 장 의존적임을 보여주었다. 한편, 정상인에게 있어서도 상상의 빈도는 장 의존성과 무관하지만 장 의존적인 사람은 상상이 외적 원인에 의해 기인된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특히 장 의존적인 사람에게 환각에 가까운 체험이 보다 잘 일어난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Cohen, Silberman & Shmavonian 1959; Holt & Goldberger, 1959). 이 연구는 분석적으로 장에 접근하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보다 방어구조가 비교적 잘 발달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알콜중독자들에 관한 연구는 알콜중독과 신체개념의 분화가 서로 관계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알콜중독 여성과 비알콜중독 여성의 DAP가 자기개념척도에 따라 비교되었는데 알콜중독 여성의 평정평균은 통제집단 여성의 평균에 비해 의미있게 낮았다. 이는 알콜중독 여성이 신체개념에 있어서 비교적 덜 분화되었음을 말해준다. (Witkin, Karp, 1959; Karp, Poster & Goodman, 1960). 알콜중독자들이 스트레스 상황하에서 술

에 의존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와 비슷한 기제는 비만증환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Pardes & Karp, 1958). 비만증환자에 대한 임상적 견해는 부적절하게 발달된 분리정체감이 스트레스에 처하게 될 때 과거 유아시절의 주된 만족의 원천이던 섭취활동에서 안식을 얻으려 한다는 것이다. 불안을 다루는 방어기제로서의 섭취는 비교적 미분화된 반응이라 하겠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편집반응이 주된 증상을 이루는 환자들에게서는 지극히 분석적인 장 접근방식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편집증의 특징적인 방어기체인 투사는 먹고 마시는 등의 일반화된 긴장해소 기술에 비해 아주 특수화(분화)된 것이다. 편집증 환자는 자신의 사고체계를 특정한 인물, 특정한 상황에 대해 아주 선택적으로 투사한다. 이러한 선택성은 세계를 분석적으로 체험할 필요를 낳게하고 결국 편집증 환자는 세밀하고 분석적인 사고체계를 개발하게 된다고 보겠다.

분화수준을 병리형태에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하여 연구한 사람은 Korichin이다. 그는 26명의 남자와 36명의 여자로 구성된 62명의 환자집단을 분화수준에 따라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EFT를 실시하였다. 첫번째 집단은 비교적 높은 분화수준을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임상특징(증상)을 갖고 있는 환자집단으로 방어구조가 발달된 정신분열증 환자, 조직적 증상을 갖고 있는 신경증 환자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번째 집단은 비교적 낮은 분화수준을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증상을 갖고 있는 환자집단으로 성격이상자, 심리적 문제를 부인하는 전환신경증 환자, 증상이 방어적이기 보다는 직접적이고 정의적인 방출을 보여주는 환자들이 포함되었다. 변량분석의 결과는 기대했던 대로 덜 분화된 집단이 분화된 집단에 비해 의미있게 장 의존적이었다. 이 결과는 장 접근양식에 따르는 정신병 환자들의 임상특징에 대해 Witkin이 세운 가설 및 연구결과와 아주 일치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Witkin(1965)은 장 독립적인 사람들은 고립화(isolation)와 理想化(intellectualization)의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하는 반면, 장 의존적인 사람들은 보다 원시적인 否認(denial)의 기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Witkin은 분화의 수준이 부적응의 형태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즉 독립적인 사람들은 피해망상적 강박적이 되기 쉽고, 장 의존적인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과도한 의존성을 보이거나 히스테리적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상과같이 분화가설을 중심으로 아동과 성인의 적응양식과 병리특징을 고찰해 보았다. 지금까지 제시된 증거는 인지양식이 병리의 존재여부와는 무관하지만

병리의 유형과 밀접하게 관계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IV. 論議 및 結語

인지양식이란 인지활동의 내용보다는 형식에 더 관련된 개념이다. 다시말해서 '무엇'을 문제로 삼지 않고 '어떻게' 지각하고 사고하고 학습하며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가를 문제로 삼는다. 실험실에서의 연구도 당연히 이런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 중 장 의존 독립성의 차원에서 인지양식을 파악한 Witkin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장 의존-독립성의 측정방법으로 RFT와 EFT를 제시하였다. 지각장이 현실적으로 제시되었던 상징적으로 제시되었던 그 결과는 극단에 있어서 대조적인 장 접근방식을 표상한다.

관계된 일련의 연구는 인지양식이 안정되고 침투력 있는 차원임을 보여주고 있다. 인지양식은 좁은 의미의 인지영역을 넓어서 정신기능의 전 영역에 펼쳐있는 개념으로 심지어 비인지적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인지양식의 두 극단은 모두가 특정한 환경에 대해 적응가를 갖고 있다. 이러한 양극적인 성격은 인지양식이 환경과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개념임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인지양식은 병리의 존재여부나 적응의 적절성과는 무관한 것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인지양식은 정신기능의 전 영역에 걸쳐있는 만큼, 적응양식과 병리형태와는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 장 의존적 접근을 하는 사람들은 정체감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으며 통제의 미발달로 수동적이고 무기력하고 의존적인 성향이 있다. 이들은 알콜중독이나 비만증, 폐양 등을 주요 증상으로 보여주는데 병리가 심해지는 경우는 환각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에 비해 분석적, 장 독립적 접근을 하는 사람들은 과잉통제, 과대이상, 고립화의 경향을 보여주며 심한 병리상태에서는 正體感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망상을 발전시키기도 한다.

Witkin과 그의 동료들(1962)에 의하면 장 의존적인 사람이 장 독립적인 사람보다 정서유발자극의 영향을 더 받는다고 한다. 그것은 장 독립적인 사람들이 보다 內在의인 준거체계(frame of reference)를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위 사실은 장 의존적인 사람이 정서와 관련된 신체질환을 호소하는 반면, 장 독립적인 사람이 자신의 준거체계를 망상체계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환자집단의 지각수행 분포가 양극에 모이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만하다. 중간에 위치하는 인지양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병리가 생겨나기 어렵다는 가능성은 좀 더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분화의 개념은 병리의 발달이나 증상선택의 개인차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유력한 접근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다. 일반적인 병리집단의 증상선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성격의 특정한 내용측면과 생활환경 뿐만 아니라 통합의 양식과 통합의 결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분화의 정도를 말해주는 타당한 지표에 입각한, 병리집단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앞으로의 유력한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 문헌

(1) 도서

- Forgus, R. & Shulman, B. Personality: a cognitive view. Prentice-Hall, 1979.
- Goodenough, D.R. Field dependence. In H. London & J.E. Exner, Jr. (Ed.), Dimensions of Personality, John Wiley & Sons, 1978
- Kimble, G.A., & Garnezy, N. Principles of general psychology. 3rd ed. New York: The Ronald Press, 1968.
- Klein, G.S. perception, motives, and personality. New York: Alfred A. Knopf, 1970.
- Leary, T.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New York: The Ronald Press, 1957.
- Mischel, W. personality and assesment.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68.
- Tyler, L.E. The psychology of human differences. New York: Appelton-Century-Crofts Inc., 1965.
- Warr, P.B., & Knapper, C. The perception of people and events. London: John Wiley and Sons, 1968.
- Witkin; H.A. Lewis, H.B.B., Hertzman, M., Machover., K., Meissner, P., & Wapner, S. Personality through perception. New York: Harper, 1954.
- Witkin, H.A., Dyk, R., Fateron, H.F., Goodenough, D.R., & Karp, S.A. psychological differentitaion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62.
- Witkin, H.A., Oltman, P.K., Raskin, E., & Karp, S.A. A. manual for the embeded figures tests. Palo Alto, Calif.: Consulting Psycholog-

- ists Press, Inc., 1971.
- Zuckerman, M., & Lubin, B. Manual for the Multiple Affect Adjective Check List. San Diego, Calif; Educational and Industrial Testing Service, 1965.
- (2) 논문
- 이장호 Cognitive Style, Presenting problem, and Therapeutic Climate as Selected Factors in the Client Preference: A Critical Review 사회과학 논문집(서울대)제 2집 119~164, 1977
- Asch, S.E. Forming impression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1946, 41, 258~290
- Bogo, N., Winget, C., & Gleser, G.C. Ego defense and perceptual style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1970, 30, 599~605
- Bruner, J.S., & Postman, L. Perception, cognition an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1949, 18, 14~31
- Bruner, J.S. On perceptual readiness. *Psychological Review*, 1957, 64, 123~152
- Byrne, D. Repression-sensitization as a dimension of personality. In B.A. Maher(Ed.) *Progress in experimental personality research*, Vol., 1. New York: Academic Press, 1964.
- Crandall, V.J., & Sinkeldam, C. Children's dependent and achievement behaviors in social situations and their perceptual field dependence. *Journal of Personality*, 1964, 32, 1~22
- Dana, R.H. and Goodcher, B. Embedded figures personality. *Perceptual and Motor Skills*, 1959, 9, 99~102
- Dreyer, A.S., Nebelkopf, F., & Dreyer, C.A. Note concerning stability of cognitive style measures in young children. *Perceptual and Motor Skills*, 1969, 28, 233~234.
- Gardner, R.W., Holzman, P.S., Klein, G.S., Linton, H.B., & Spence, D.P. Cognitive Control: A study of individual consistencies in cognitive behavior. *Psychological Issues*, 1959, 1 (4), 1~186.
- Gardner, R.W., Jackson, D.N., & Messick, S.J. Personality organization in cognitive controls and intellectual abilities. *Psychological Issues*, 1960, 2 (4), Monograph 8.
- Gough, H.G. & McGurk, E.A. A group test of perceptual acuity. *Perceptual and Motor Skills*, 1967, 24, 1107~1115
- Gough, H.G. & Olton, R.M. Field independence as related to nonverbal measures of perceptual performance and cognitive abili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972, 38, 338~342.
- Heider, F. On social cognition. *American Psychologist*, 1967, 22, 25~31.
- Iscoe, I., Carden, J.A. Field dependence, manifest anxiety, and sociometric status in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961, Vol. 25, 2, 184.
- Jackson, D.N.A. Short form of Witkin's Embedded Figures Test,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1956, 53, 254~255.
- Kagan, J. Moss, H.A., & Sigel, I.E. Psychological significance of styles of conceptualization. In J.C. Wright & J. Kagan (Eds.), *Basic cognitive processes in children*. Monogr. Soc. Res. Child Developm., 1963, 28, Monogr. 86.
- Karp, S.A., Kissin, B., & Hustmyer, F.E. Field-dependence of alcoholic therapy dropout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70, 50, 77~83.
- Minard J.G., & Mooney, W. Psychological differentiation and perceptual defense: Studies of the separation of the separation of perception from emotio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1969, 74, 131~139.
- Renner, V. Effects of modification of cognitive style on creat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0, 14, 257~262.
- Samelson, E. Response style: A psychologist's fallacy? *Psychological Bulletin*, 1972, 78, 13~16
- Scallan, R.J., Herron, W.G. Field articulation of enuretic boys and their mother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1969, 28, 407~413
- Schimek, J.G. Cognitive style and defense: A longitudinal study of intellectualization and field independenc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968, 73, 575~580.
- Schneider, D.J. Implicit personality theory: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972, 78, 13~16.

- Todd, F.J. & Rappoport, L.A. Cognitive structure approach to person perception: A comparison of two model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1964, 68, 416~478.
- Witkin, H.A. Perception of body position and of the position of the visual field. *Psychological Monographs*, 1949, 93 (Whole No. 302), 1~46.
- Witkin, H.A. Individual differences in ease of perception of embedded figures. *Journal of Personality*, 1950, 19, 1~15.
- Witkin, H.A. Further studies of perception of the upright when the direction of the force acting on the body is changed.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952, 43, 9~20.
- Witkin, H.A., Psychological differentiation and forms of 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965, 70, 317~336.
- Witkin, H.A. Socialization and ecology in the development of cross-cultural and sex differences in cognitive style.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21st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 Paris, July, 18~25, 1976.
- Witkin, H.A., Goodenough, D.R., & Karp, S.A. Stability of cognitive styles from childhood to young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67, 7, 291~300.
- Witkin, H.A., Goodenough, D.R. & Oltman, P.K. Psychological differentiation; current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1979, 37 (7), 1127~1145.
- Witkin, H.A., Oltman, P.K., Cox, P.W., Ehrlichman, E., Hamm, R.M., & Ringler, R.W. Field dependence-independence and psychological differentiation: a bibliography through 1972 with index. *Research Bulletin* 73~62. Princeton, N.J.: Educational Testing Service, 1973.
- Young, H.H. A test of Witkin's field-dependence hypothesis. *Journal of Abnormal & Social Psychology*, 1959, Vol. 59 (2), 188~192.
- Zuckerman, M. Field dependence as a predictor of responses to sensory and social isolation. *Perceptual and Motor Skills*, 1968, 27, 757~758.
- (3) 未出版資料
- Bauman, G. The stability of the individual's mode of perception and of perception-personality relationship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1951.
- Bell, E.G. Inner-directed and other-directed attitud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1955.
- Fenchel, G.H. Cognitive rigidity as a behavioral variable manifested in intellectual and perceptual tasks by outpatient popul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1958.
- Gibeau, P.J. Field dependency and the process reactive dimension in schizophreni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rdue University, 1965.
- Kipperman, L.R. Effects of drive arousal on the analytic categorizing sty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1964.
- Linton, H.B. Relations between mode of perception and tendency to confir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1952.
- Loeff, R.G. Embedding and distracting field contexts as related to the field dependence dimen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Brooklyn College, 1961.
- Longenecker, E.D. Form perceptions as a function of anxiety, motivation, and the testing situ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1956.
- Venten, E. The induction of elation and depression through the reading of structured sets of mood-statem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1967.
- Zukmann, L. Hysteric compulsive factors in perceptual organiz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 1957.
-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Style and Adjustment Mechanisms
- Bong-Keon Lee
- Abstract
- An individual has his own mode of perceiving, memorizing, and thinking. Since this mode was named 'cognitive style' by Klein, it was thought that cognitive style makes an individual's behavior expressed in a consistent way, affects noncognitive beha-

viers and determines the styles of adjustive behaviors.

Typical among the studies of cognitive styles was Witkin's research on the field dependence-independence. In this article, the concept and measurement of the field dependence-independence satisfying the basic assumptions about cognitive style was reviewed,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field dependence-independence & adjustment mechanisms were discussed. Finally, the implication that field dependence-independence, a particular cognitive style, would be an effective tool for understanding psychopathology was considered.